Entertainment p/17
오종혁 티아라 소연 열애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Sports p/21
김연아 발 부상 GP 불참

LIFE p/12

Entertainment p/13

1인 2역─출연료는 1인분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제252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추신수 몸값 1000억 이상"

K-팝 본고장서 점핑! 점핑! 2013 K-팝 페스티벌 결선에 오른 전 세계 14개국 참가자들이 26일 서울광장에 모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결선은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상상 입힌 역사' 세상을 달래다

추석에 개봉한 영화 '관상' 1000만 눈앞─스크린·안방 '팩션 사극' 열풍 재연 조짐

역사적 사실에 극적인 허구를 더한 '팩션 사극'이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대박을 보장하는 흥행 장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추석 한 주 전 개봉된 '관상'이 상영 보름 만인 25일까지 729만3222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을 동원해 꿈의 1000만 고지를 예약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8부(800만 명) 능선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 고지 등극이 확실시된다.

지금의 흥행몰이 속도라면 이제까지 모두 합쳐 편인 역대 1000만 관객 돌파 흥행작에 '왕의 남자'(2005년)와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년)에 이어 팩션 사극으로는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내년에는 팩션 사극의 이 같은 흥행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조 암살을 둘러싼 음모를 파헤치는 '역린'과 명량해전을 다룬 '명량-회오리 바다', 도적들의 활약상을 그린 '군도: 민란의 시대' 등 여러 작품들이 제작 중이다.

안방극장에선 일찌감치 '대세'로 사랑받고 있다. '대장금'을 시작으로 '선덕여왕', '구가의 서' 등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후로 수

영화 '관상'의 한 장면

많은 팩션 사극들이 쏟아졌다. 다음달부터는 원나라의 지배자로 군림한 고려 여인 기황후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MBC '기황후'가 전파를 탄다.

대중문화 관계자들은 팩션 사극의 흥행 요인 중 하나로 역사의 허구가 절묘하게 혼합된 이야기의 매력을 꼽고 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것이다.

또 제작과 마케팅 기술 등의 발전도 팩션 사극의 유행을 거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씨는 "영화계가 이제는 장르 문법에 익숙한 영화를 잘 만들어내는 노하우를 터득했다. 여가 활용으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시점에서 폭넓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배우들을 캐스팅하거나 명절 시즌에 개봉하는 등 관객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팩션 사극의 인기와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설득력 없는 역사 왜곡 경계"

전문가들은 설득력 없이 역사의 큰 줄기를 해치는 왜곡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 중이다. '기황후'가 대표적으로, 기황후를 사료 속의 악녀가 아닌 영웅으로 재해석한 내용 탓에 방영 전부터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칠 만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석진 충북대 국문과 교수는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장시키고 되짚어보는 데 진지한 의도가 있다. 팩션 사극 역시 지금 시대에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타당한 설득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기황후'처럼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를 뒤집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기자 pjh0427@metroseoul.co.kr

박대통령 '기초연금 사과'

"모든 어르신 못드려 죄송"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 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폐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2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일의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연준기자 mkim@

복지에 106조…1인 세부담 10만원 늘어

복지수요별 서민 중산층 주요 혜택

구분	항목	2013	2014	비고
보육·양육	접종비 본인부담	연5만원(1회 5000원) 12세 기준	본인부담금 폐지	
	보육료	1인당 월 22~39.4만원		지자체 부담 완화로 안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양육수당	1인당 월 10~20만원		
대학교육비	셋째 아이	-	연 450만원	1학년부터 시행
	대학생 장학금	연 67.5~450만원	연 90~450만원	연소득 7200만원 이하
의료비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연 14만원	본인부담 연 최대 94만원 경감(제도개선 완료시)	
	임플란트	1개당 150~200만원 부담(건강보험 적용 제외)	1개당 75~150만원 부담	75세 이상
	본인부담상한제	200~500만원 부담	120~500만원 부담	연소득 3360만원 이하
주거지원	주택 바우처	연 8만원(주거급여)	연 11만원(주택바우처)	2014.10월 시행
소득지원	사병월급	연 140만원	연 162만원	상병기준
	기초연금	연 1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자료/기획재정부 · 2014년 예산안 · 연합뉴스

내년 예산 357조7000억—75세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셋째 등록금 정부지원

2014년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1인당 세부담은 10만원가량 늘어난다.

병사들의 월급이 15% 인상되고 75세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그러나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국민 1인당 세금 550만원

내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 122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간다. 즉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되고 육군 장병에겐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된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600원으로 15% 오른다.

내년에는 장애인연금이 20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고, 75세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어린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경우 1회 접종에 5000원 정도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화장품 다이어트

기자 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화장품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끊으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최근 화제를 모은 책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의 저자 우츠기 박사의 경고다.

한국 여성들이 쓰는 기초 화장품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퍼스트 세럼, 스킨,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나이트크림 등 셀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의 여성이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모셔두고 매일 겹겹이 정성을 다해 바른다.

과연 이 많은 화장품들이 피부에 '득'이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점성과 탄성 등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물과 기능은 똑같다는 것. 뷰티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 하나만 골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같은 라인의 화장품을 세트로 구비하느라 지갑을 열었던 소비자들에게 억울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스킨-로션-에센스-크림'으로 통하는 기초 4종 세트를 갖춰놓고 순서대로 발라야 한다는 인식은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낸 '마케팅의 산물'이다. 지금도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새이름표'를 단 똑같은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방한한 미국의 뷰티 칼럼니스트 폴라 비가운의 말이 떠오른다.

"제발 화장품 업체가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화장품 회사의 속임수를 간파해야 건강한 피부를 되찾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대장경 진본 첫 일반 공개 26일 오후 경남 합천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에서 개막된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 스님과 축제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대장경 진본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RO 반국가단체 못 밝힌 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등 기소 여적죄 혐의는 적용 안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이적죄)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 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설희

아인슈타인 E=mc² 발표

1905년 9월 27일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 심사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E=mc²라는 질량·에너지 등가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진공 속의 빛의 속도를 나타낸다. 즉, 에너지=질량×광속의 제곱이다. 이 개념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어떻게 태양이 계속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원자력 발전과 핵폭탄 제조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대법,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이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이후 올해 1월 조울증과 호흡 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구속집행정지는 11월 7일까지로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선한기자

꽃길은 동심 26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녹색바이오단지에서 열린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꽃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한글날이 빨간날이야?" 31%

국경일·공휴일인줄 몰라

한글날이 공휴일인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31.9%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글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라고 정확하게 답한 이는 52.2%였고, 7.3%는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라고 응답했다.

한글날이 훈민정음 반포일을 근거로 삼은 사실을 아는 이는 57.8%였다. 32.3%는 훈민정음 창제일이라고 답했고,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답한 이도 1.2%였다.

15세기 훈민정음 반포 당시(28자)와 지금의 한글 기본 낱글자(24자)의 수를 정확하게 아는 비율은 55.8%였다.

문체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이야기 10+5'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충리기자 · 100%

강남-국제업무 영등포-국제금융 한양도성-역사문화 중심지로!

2030 서울 '3도심' 재편

서울시가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재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의 20년 비전을 담은 '2030 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서울시 모든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과 5가지 핵심 이슈 계획을 작성했다.

공간 계획은 1990년 수립된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체계를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서울 4대문 안인 한양도성이 도심이었지만 강남과 영등포·여의도를 추가해 3곳으로 설정했다.

한양도성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하면서 강남은 국제업무중심지로,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강남의 5부도심을 확대해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7광역중심으로 잡았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 동북권과 서남권에 1곳씩을 더했다.

12지역중심은 권역별로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을 뽑았다.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동 등이다.

5대 핵심이슈계획은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이와 관련 매년 최저소득기준 보장률·노인여가복지시설 수·지역공공보건기관 수·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일자리비율·문화기반시설 수 등을 수치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조현준기자 m@metroseoul.co.kr

고공 낙하 훈련 26일 오후 군인들이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고공 낙하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지도층·연예인 병역이행 집중 관리

병무청이 26일 사회지도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자원의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 관리 대상자는 고위 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 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2000여 명 등 총 11만1000여 명이다.

이들의 병역 사항은 만 18세가 돼 병역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집중 관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빈준기자

'키코 소송' 은행 손 들어준 대법

"계약 불공정하지 않다" 판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 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은 환헤지 목적 기업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 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권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합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은행이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준기자

출생아 수 7개월 연속 감소

올해 혼인 건수는 3개월 연속 늘었지만 태어난 아기 수는 매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3만6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2%(37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0.4%를 기록하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월(-9.1%), 3월(-10.2%), 4월(-6.0%), 5월(-9.4%), 6월(-12.6%), 7월(-9.2%) 등 감소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김충리기자

2호선 신정지선 연장되나

강서구 화곡동 숙원사업 서울시, 후보지 전격선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역↔까치산역) 연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서 강서구의 신정지선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 화곡~홍대입구선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향후 5년 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강서구는 그동안 까치산역에서 단절된 지하철 2호선인 신정지선 연장 요구를 서울시에 끊임없이 제기했다. 신정지선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연장 요구안은 까치산역에서 화곡시장을 거쳐 강서구청 앞으로 지나 지하철 9호선인 가양역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향후 5년 내에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노현송(사진) 강서구청장은 "신정지선 연장은 강서구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노선 연장이 서울시 기본 계획에 포함돼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율기자

서울 구로구가 지난해 주최한 넥타이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갖가지 넥타이로 넥타이를 전체 흥겨운 분위기를 지나고 있다. /구로구청 제공

오늘 넥타이 매고 G밸리로!

넥타이마라톤 대회 열려

서울시 구로구의 이색 축제 'G밸리 넥타이마라톤 대회'가 27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넥타이마라톤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넥타이를 매고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5km 코스를 달리는 미니 마라톤 행사로, 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변모한 구로구의 모습을 알리고 벤처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3년 첫선을 보였다.

목, 머리, 손목, 허리 등에 각양각색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참가자들과 행사 모습이 각종 언론에 소개되며 구로구만의 명품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이번 대회를 만든 이성(사진) 구청장은 "역사가 있는 구로공단이지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다"며 "넥타이를 접목해 구로구의 변화상을 알리고 벤처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주고 싶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업인들이 주민들과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없으면 기업인들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올해 주민화합잔치로 대회의 성격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nl.kim@

원광디지털대 홈페이지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시종·www.wdu.ac.kr)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및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WA인증마크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국내 최초의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로, 소프트웨어 기술 등급을 갖춘 장애인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차! 영차!"− 신나는 공굴리기 26일 오전 경남 함양군 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공굴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양군 제공

중·고교생 11.6% '빼끔'

최초 흡연연령 12.6세 · 매일 피우는 학생도 5.4%

전국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 흡연 음주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800여 개 중고교 학생 8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11.6%로 집계됐다.

최초 흡연은 평균 12.6세였고, 매일 흡연하는 학생은 5.4%, 하루 1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은 2.3%였다.

지역별로는 강원(17.7%)이 가장 높고 충남(13.4%), 전북(13.3%) 등이 뒤를 이었다. 하루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중독률은 강원(3.9%), 충북(2.7%), 전남·제주(2.6%)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음주는 12.8세, 음주율은 19.4%로 나타났다.

남학생 기준 1회 평균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기준 3잔 이상 마신다고 답한 위험 음주 학생은 전체의 47.6%였다. 지역별 음주율은 강원(23.7%), 충북(22.1%), 충남(22.1%) 순이었고, 위험 음주율은 강원 58.6%, 울산 51.7%였다. 부탄가스, 본드 등 약물 경험이 있는 학생은 0.6%였다. /연합뉴스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다문화사랑나눔센터'

일요일은 "가나다라" 한글 가르치는 날

대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배기효) 지역사회봉사단 '다문화사랑나눔센터'는 일주일 내내 쉴 틈이 없다. 평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 주말에는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다문화인들을 위해 매주 1회(일요일)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 사랑나눔센터는 지역사회봉사단 소속으로 다문화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법률 상담 연계, 일자리 연계, 한글 교육, 한국 문화 알리기, 각종 전통 공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글 수업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문화인들은 한글을 배우는 대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

또한 노래교실, 종이접기 만들기, 각자 나라 문화 소개하기, 레크리에이션 등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를 통해 서로 간에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필리핀에서 온 나탈리는 "열심히 한글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미숙 다문화사랑나눔센터 대표는 "한글 교육을 받고 싶지만 평일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을 활용하게 됐다"며 "교육준비로 손이 바쁜데 시간을 내어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2010년부터 지역사회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688-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리기자

홈페이지(vms.or.kr)에서는 봉사단에 세대의 봉사활동을 위해 봉사단을 모집 중이다. 또 한달 1회 자원봉사 4시간으로 연결되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증서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재수감 – 항소심서도 실형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은행 계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조 전 청장 스스로도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래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서 척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김산환기자

보건복지부

바둑맨이 들려주는 기초든든 연금이야기!

멍멍!

에휴...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지 내 노후는 어떡하나

할머니 한숨은 뚝! 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짜 잔

기초연금

최대 20 만원

어르신들 노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제도랍니다!

우와~

상위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르신 (353만 명)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90%

이렇게나 많이!?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므로써 보다 든든한 연금제도가 되는 것이죠!

잠깐!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거 아냐!?

불쑥~

?

후후후후 걱정 마세요!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가가!?

후후후

142

정부안대로 하게 된다면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르신과 자녀세대의 연금 걱정들! 더 이상 못 온다!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군단

으르렁~

STOP

슈웅~

우와! 기대해 볼게!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Горожане пробежали вверх ногами

metro France

La sieste au travail c'est possible

매일 8~25분 낮잠 재워주는 회사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에서 근로자에게 낮잠을 제공하는 독특한 창업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 창설자인 기욤 케버(25)는 "우리는 장시간 근무로 활력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짧고 강한 낮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활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낮잠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 설치된 간이침에 들어가면 된다. 낮잠 시간은 8분에서 25분까지 다양하다. 기윰은 "낮잠 시간이 끝나면 미관 불빛이 밝게 변하면서 사용자를 깨운다"고 설명했다.

metro Canada

Le tour du m (ou presque!) en

태양열 전기 자전거로 80일 세계일주

80일간 세계 일주를 한 캐나다 여성이 화제다. 태양열과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로 총 8102km 여정을 마친 어나 미락 부샤르. 그는 에번 선 트립(Sun Trip) 도전에서 여성 단독으로 유일하게 성공했다. 매일 평균 100km 주행 목표로 그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전 세계를 누볐다. 또한 일주 기간 동안 블로그를 통해 여행 이야기를 알려 선 트립 도전자 중 최고의 블로거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구 위에 매달린 사람들

러시아서 이색 물구나무서기 대회 열려…"두통·심장질환 호전 등 효과 탁월"

최근 물구나무서기에 자신 있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 익스트림 스포츠 '물구나무서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 광장에 모였다.

경기 시작 전 참가자들은 모두 몸을 풀기 위해 제각각 물구나무를 서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소년은 앙증맞은 외모에 유연한 몸놀림으로 물구나무를 서 인기를 한 몸에 얻었다.

경기 참가자 빅토리아 카민스카야는 "예전에는 아크로바틱과 춤을 췄었지만 최근 물구나무를 접한 후 그 매력에 푹 빠져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민스카야는 이어 "물구나무를 오래 서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적당한 물구나무서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물구나무 오래 서기와 물구나무 서서 멀리 가기 등 모두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됐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부상자를 돕기 위해 행사장 곳곳에서는 하얀 날개를 단 '수호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수호천사들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개개인의 기록도 측정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한 알렉세이 세르기옌코는 "4년 전쯤 물구나무 대회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지만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한 후로 나는 두통이 사라지고 심장질환도 호전되는 등 덕을 많이 봤다. 그래서 대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알리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번 대회의 물구나무 오래 서기 챔피언은 나탈리아 스트바(18~40세 남성 부문)로 1분18초의 기록을 세웠다. 또 물구나무 서서 멀리 가기 챔피언은 무려 67.5m의 기록을 세운 스타니슬라프 파쉬코프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물구나무서기 대회 이외에도 전문가로부터 물구나무서기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물구나무서기 교실' 등의 행사도 열려 인기를 끌었다.

/올가 솔가토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Sweden

18, utpressades att teckna abonnemang

18세 소년 위협해 휴대폰 약정 강요 700만원 요금폭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이 힘없는 18세 소년에게 비싼 통신 요금제를 강제 가입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요한(18)은 여름 막바지에 친구를 따라 예테보리 시내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낯선 영업사원 4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휴대전화 약정에 서명했다.

요한은 학생이었고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가입을 거부했지만 사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쫓아다니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요한을 4개의 다른 매장에 데려간 뒤 가족 약정 3개를 포함해 무려 7대의 휴대전화에 강제 가입시켰다.

요한은 당시 상황에 대해 "두려웠지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중에 나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핸드폰 매장을 지나거나 그들의 광고만 봐도 속이 메스껍다"고 밝혔다.

요한의 가족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고 모든 휴대전화에 대한 약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4곳의 통신사 중 단 한 곳만 이 요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통신사의 횡포에 화가 난 요한의 엄마 카린은 "청구된 통신요금이 무려 4만 크로나(약 700만원)다.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통신사는 이러한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수입도 없는 18세 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벨레 크넬리우손 기자 정리=김동재 인턴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2007.32 (+9.28)	532.83 (+5.53)

금리	환율
2.85 (+0.01)	1078.50 (+0.50)

뉴스 & 뉴스

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선출

● 26일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에 최경수(63·사진) 전 현대증권 사장이 선출됐다.

최 전 사장은 금융위원회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다음주 중 차기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신임 최 이사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국세심판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거쳐 2006~2009년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 2008년 현대증권 사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몸담은 바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채성기자

보금자리론 0.15%P 인하

●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달부터 0.15%포인트 내린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형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10월부터 이처럼 인하된다.

대출 기간(10~30년)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의 경우 현행 연 4.30~4.55%(10~30년)에서 연 4.15~4.40%(10~30년)로 낮아진다. /김현정기자

금융사기 예방 무료 앱 인기

●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자동 검색을 통해 스팸 전화나 금융사기 목적의 전화라는 점을 알려주는 앱 '후후'와 '이 번호'의 가입자는 이달 들어 300만 명을 넘어섰다. '후후'와 '이 번호'는 앱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동으로 번호를 검색해 발신자 정보를 알려준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회장겸발행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표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8-2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라00141 (가)000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 서민 돈맥경화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주요 이용자인 서민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2.17%에서 올 2분기 2.88%로 0.71%포인트 상승했다. 아주캐피탈 역시 지난해 2분기 4.01%에서 올 2분기 4.59%로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 역시 오름세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은 올 2분기 기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21.5%)보다 상승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계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점과 함께 최근 금리까지 오르면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원화강세장의 월척 낚아 볼까

지난 3개월 美달러화 대비 절상률 6.4% 최고수준

한국전력 비롯 내수 식음료·조선업종 수혜주 거론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상되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이후 이달 23일까지 원화는 달러화에 비해 6.4% 절상됐다.

원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은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컸다.

서구 선진국 통화들은 영국 파운드화(4.9%), 유로화(3.9%), 호주 달러화(1.7%) 등의 절상폭을 기록했고 신흥국들은 대만(1.6%), 싱가포르(1.2%), 중국(0.4%)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된 신흥국들인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경우 각각 13.3%, 4.8% 절하됐다.

특히 원화는 유일하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 소식이 나온 7월부터 석 달 동안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증시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중국 경기 지표도 개선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따라 한국전력을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다.

유덕상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세전이익은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연간 기준 2900억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하는 이유는 환헤지를 하지 않고 환 노출 금액도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넘게 원·달러 환율과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분기 말을 기점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 자체가 (한전으로선)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내수 음식료 업종인 대상·CJ제일제당과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현대제철 등도 원화 강세 수혜주로 거론됐다. /지현정기자 h.kim@metroseoul.co.kr

하루 쉬고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9.28포인트(0.46%) 오르며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26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전광판에 코스피 마감 지수가 2007.32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고졸 취업박람회장 꽉 채운 당찬 10대들 26일 '2013 고졸성공 취업박람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박람회장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 참가한 130여 개 기업은 현장 면접 등을 통해 고졸 채용자 7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분양 털기 대작전

업계 8·28 훈풍 식기 전 물량해소 위해 파격 혜택

8·28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올 연말까지 미분양을 최대한 털어내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전략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가격 할인은 기본이고, 잔금을 몇 년 유예하는가 하면 생활비까지 현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두산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분양 대금의 22~25%를 입주금으로 납부한 뒤 3년간 살아본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제도를 제시했다. 여기에 평형에 따라 계약금의 2~6%의 현금을 생활비 조로 매달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금융관리비 등도 회사 측이 대납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에 적지 않은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롯데캐슬은 계약자에게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최대 2년간 미뤄주는 방법으로 계약 실적을 올리고 있다. 우림건설도 '고양삼송 우림필유'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보다 26%가량 내리며 미분양률을 10%대까지 낮췄다.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 저렴해진 이 아파트는 할인 경쟁 중인 인근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서도 4000만~5000만원가량 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와 관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빈 집을 채우는 게 낫다"고 전했다. /정은지기자

'목돈 안드는 전세' 30일 출시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연 3.5~4.9% 금리로 일제히 출시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0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해당 상품의 가입을 받을 전망이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은행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김현정기자

SF영화에서 본 미래 직접 체험

SKT ICT전시관 '티움' 5주년 업그레이드 개관

스마트폰 하나로 집 안의 벽지를 바꾸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거실 벽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의 손쉬운 정비가 가능해진다. 옷을 구매할 때도 전신 스캐너를 통해 신체 사이즈를 입체적으로 분석, 맞춤형 옷을 손쉽게 만든다.

25일 방문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 위치한 티움(T.um)은 국내 유일의 체험형 정보통신기술(ICT) 전시관이다.

개관 5주년을 맞이 새롭게 변화한 티움은 미래 생활상을 보여주는 '플레이 드림관'과 현재 SK텔레콤의 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 리얼관'으로 재단장했다.

플레이 드림관에서는 미래 주거환경을 구현한 '유홈(U Home)', 전시된 자동차를 직접 타고 미래의 교통수단을 체험해볼 수 있는 '유드라이빙(U Driving)',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옷을 입어보거나 패션쇼를 할 수 있는 '유패션(U Fashion)' 등을 통해 미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도록 꾸몄다.

이 체험관을 관람한 관람객이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생활상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이 같은 기술들은 ICT의 급격한 발달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레이 리얼관에서는 전통시장에 ICT를 도입한 소상공인 원스톱 경영 지원 솔루션 '미아샵'과 초소형 빔 프로젝터 '스마트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스온' 등 신성장 사업 관련 약 30개 아이템을 선보였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며 흥미로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티키(T key)였다.

티키는 티움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미래형 휴대전화로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나만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관람객 모두가 티키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티움이 다시 한 번 날갯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IT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선봉장으로서 많은 이들이 다시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라인카메라 5000만명 이용

●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의 공식 카메라 앱 '라인 카메라'가 서비스 출시 17개월 만에 전세계 누적 내려받기 5000만 건을 돌파했다.

라인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저장한 사진을 간편하게 꾸미고 편집해 라인을 비롯한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앱이다.

100종 이상의 화면 틀과 30종 이상의 필터, 200종의 낙서 포함해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들을 마련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네이버는 다음달 초 인물 사진을 더욱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뷰티(미용)' 기능을 포함해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력서 보정사진' 비호감

● 우리나라 기업 인사담당자 2명 가운데 1명은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의 '보정 사진'에 당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9~30일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251명)는 면접장에 들어온 지원자와 이력서 사진의 얼굴을 일치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이 허용할 만하다고 생각한 사진 수정은 피부 보정(59.1%)이었다. 보정을 하지 않은 실제 얼굴 사진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23.5%로 그 뒤를 따랐다. /박상훈기자

한글과 컴퓨터 채용 접수

● 한글과컴퓨터는 2013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 채용을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다.

한컴의 영업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오피스, 모바일 클라우드 오피스, 이지포토 전자책 저작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개발직, 응용개발직, 영업 및 영업관리, IT 개발, 홍보 등의 분야에 걸쳐 40여 명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력 부문은 해당 직무 1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컴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hancom.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킨들 파이어 2세대 출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이 26일 태블릿 PC '킨들 파이어' 2세대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이 중 고급 버전인 '킨들 파이어 HDX 8.9인치'의 경우 화면 화소 수가 2560×1600으로, 풀HD(1920×1080) TV의 2배 이상이며 지금까지 나온 태블릿 제품 중 가장 해상도가 높다.

현존 최대 화소 수 기록 모델은 애플 '레티나 아이패드'의 2048×1536이다. 무게도 374g으로 지금까지 나온 대화면 태블릿 중 가장 가볍다.

함께 발표한 '킨들 파이어 HDX 7인치'는 1920×1200, '킨들 파이어 HD 7인치'는 1280×800 화면이 달려있다. HDX 모델 2종은 퀄컴의 2.2GHz 쿼드코어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는 태블릿용 프로세서 중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다만 국내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 디지털 기기 판매 브랜드 익스펜시스코리아의 박선미 부장은 "북미를 제외한 해외시장에서는 킨들의 인기가 높지 않다"며 "개인이 이베이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훈기자

오늘부터 우체국서도 알뜰폰 팔아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가량 저렴한 이동통신 알뜰폰이 27일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2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판매 전용 창구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알뜰폰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동양 금융계열사 문제없다"

그룹 정상화될때까지 특별점검 지속하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정해진 기한 없이 점검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은 2~3주에 걸쳐 시행되지만 이번 동양 사태의 경우 이 같은 기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조기 점검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 철회라는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달 동양그룹 계열사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내린 바 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추가 강등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80세도 가입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문의 080-951-8585. /김민지기자

'벽돌깨기' 카카오 게임 1위

모바일게임 전문기업 컴투스가 선보인 퍼즐게임 '매일매일 벽돌깨기 for Kakao'가 출시 첫날부터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첫선을 보인 '매일매일 벽돌깨기 for Kakao'는 출시 직후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25일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인기 순위 6위에도 이름을 올리며 순항을 이고 있다. /박성훈기자

'자구자구' 세계 축구★ 뜬다

CJ E&M 넷마블은 26일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와 정통 온라인 캐주얼 축구게임 '차구차구'의 온라인·모바일게임 전 세계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넷마블은 '차구차구'를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할 때 협회에 등록된 전 세계 약 50개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박성훈기자

'내일은 야구왕' 1이닝 리그

엔트리브소프트는 국내 최초 프로야구단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에서 '내일은 야구왕' 이벤트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자신의 선수 카드로 타자 라인업을 구성해 1이닝 경기를 진행하는 이벤트로 플레이 코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규리그 1경기마다 3개의 플레이 코인을 지급한다.

LoL 챔피언십 지난해 결승전 현장. 올해 결승전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라이엇게임즈 제공

롤드컵 결승티켓 잡은 태극전사

4강 오른 나진 소드-SKT T1 28일 숙명의 대결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세계대회 'LoL 시즌3 월드 챔피언십 2013' 대회 4강전에 우리나라 나진 블랙 소드와 SKT T1이 진출했다.

26일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지난 25일 8강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4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4강전에는 우리나라 3팀 중 2팀이나 참여하게 되면서 팬들을 더욱 열광케 했다. 우리나라 나진 블랙 소드와 SKT T1은 28일 결승전을 향한 티켓을 두고 숙명의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롤드컵'이란 독특한 닉네임을 지니고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을 사실상 평정한 게임인 만큼 월드컵과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지닌 게임 대회를 지향하고 있다.

4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나진 블랙 소드의 대전 모습. /라이엇게임즈 제공

24일 열린 8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북미 지역 1위 팀인 클라우드 9과 유럽의 강호 프나틱이 맞붙어 프나틱이 2-1로 승리하며 가장 먼저 4강 진출을 확정했다. 다음 경기에서 우리나라 나진 블랙 소드와 유럽 전통의 강호 겜빗 벤큐가 격돌. 1경기를 내줬으나 나진 블랙 소드가 뒷심을 발휘해 이후 벌어진 2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하며 4강에 올랐다.

4강 대진표가 결정된 25일에는 우리나라 SKT T1과 동남아시아 대표 감마니아 베어스가 격돌했다. T1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2연승을 써 월등한 4강 진출을 거머쥐었다.

남은 한 티켓은 중국 지역 1위 팀인 로열 클럽 황주가 차지했다.

이로써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양 팀 간 맞매치가 펼쳐지게 됐다.

4팀 간의 준결승 경기는 28일 토요일 정오, 29일 일요일 오전 4시에 각각 열린다.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 및 '소환사의 컵'의 주인이 결정되는 대망의 결승전은 다음달 5일 토요일 정오부터 개최된다.

/김승호기자 unisus@metroseoul.co.kr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달 21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능성게임의 다양한 소재 발굴 및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2회 대한민국 기능성게임아이디어공모전'을 연다.

기능성게임이란 정보 전달·홍보, 인식 전환·훈련 등을 목적으로 게임적 재미요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게임과는 달리 일상 속 지식 습득과 공공이익을 추구,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공모전의 주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로 교육, 공공, 재활의 3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게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교육 분야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기능성게임, 공공 분야는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홍보하는 게임, 재활 분야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한 게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까지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사이트(www.gameide a.co.kr)에서 가능하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대상은 통합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편) 500만원, 교육 분야는 프뢰벨상 우수상(1편) 300만원, 장려상(2편) 각 100만원, 공공 분야는 (사)해외자원개발협회상 우수상(1편) 300만원, 장려상(2편) 각 100만원, 재활 분야는 LG유플러스상으로 우수상(1편) 300만원, 장려상(2편) 각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작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내년 추진 예정인 '2014년 기능성게임제작지원사업'의 지정 공모 주제로 편성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박성훈기자

한·일 게이머 1만명 '다크폴' 2차테스트

글로벌 게임 보털 엠게임은 신규 MMORPG '다크폴: 잔혹한 전쟁'에서 한·일 공동 2차 비공개 테스트를 26~29일 실시한다.

이번 2차 비공개 테스트는 한국과 일본 게이머 각각 5000명씩 총 1만 명의 규모로 진행된다.

테스트 3일차인 28일에는 대량의 게임머니와 각종 자원이 보관된 해상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연합이 바다 위에서 경쟁하는 해상전이 진행되며, 29일에는 1차 테스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한·일 유저 간 대규모 공성전이 펼쳐져 '다크폴'의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다크폴은 2차 비공개 테스트를 기념해 30일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게임 플레이 장면을 1시간 이상 생중계한 뒤 다크폴 홈페이지의 UCC 동영상 게시판에 영상을 등록한 유저에게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박성훈기자

아웃도어 맏형 '사회공헌의 산' 큰걸음

블랙야크 '나눔재단' '강태선 장학재단' 출범… 2015년까지 100억기금 목표

"지난 40년간 블랙야크는 정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 사회 소외계층을 돌아보며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국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26일 '나눔재단'을 출범시켰다. 업계 최초로 출범한 공익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블랙야크 강태선 대표는 이날 서울 대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과 재단법인 '블랙야크 강태선 장학재단'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 나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리더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도어 업계 1세대로서 그동안 아웃도어 업계가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며 "블랙야크 나눔장학재단을 계기로 많은 아웃도어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눔재단은 산악인 유족과 부상자 지원, 녹색 환경 조성, 네팔 교육 개선 등 블랙야크의 아웃도어 사업과 맞물린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 가정을 돕는 복지 사업에도 나선다. 장학재단은 산악인과 소외계층 자녀, 개발도상국 인재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두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강 대표가 맡았으며 재단은 설립 출연금 29억원(나눔재단 23억원·장학재단 6억원)과 매년 블랙야크 이익의 2%를 쌓아 201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운영된다. 특히 블랙야크는 고객과 함께 국내 산을 릴레이로 등반하는 '명산40 캠페인'을 통해 참가자 3000여 명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적립한 기부금도 재단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블랙야크는 유럽 진출 계획도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네팔에 낸 블랙야크 매장은 유럽 등산객들에게 반응이 좋다"며 "오는 10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73년 '동진'으로 출발한 블랙야크는 40년간 토종 기술로 개발한 등산 의류와 용품을 선보이며 지난해 매출 6600억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블랙야크가 6월 지리산에서 진행됐던 한강이류한정장의 펀드 400을 서울시 서울시청의 푸드뱅크에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 빅3 설레이는 가을 정기세일

다음달 2~21일 진행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빅3'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추석연휴 특수로 비롯된 모처럼의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10월 2일부터 19일 동안 가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세일에서는 이른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 상품 판매 행사를 3~4주 일찍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본점·잠실점·강남점 등 10개 점포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013~2014 모피 페어'를 연다. 진도·근화·국제 등 유명 모피 브랜드 물량을 작년보다 20% 확대해 총 1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또한 아울렛을 제외한 전 점에서 응모권 받아 1등 1명에게 '라스베이거스 왕복 투어 여행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가을맞이 와우세일을 실시하고 아웃도어·남녀 의류·잡화류 등을 10~30% 저렴하게 내놓는다. 지난해보다 행사별 물량을 최대 30% 이상 늘렸다.

신세계강남점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모피대전을 연다.

진도·동우·디에스·윤진·사비떼에 등 9개 유명 모피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신상품을 포함 10~30% 할인 판매한다. 본격 정춘철을 맞아 혼수 관련 행사도 마련했다.

/박지원기자

비비안 타이즈 20종 가을 느낌 담아 출시

● 남영비비안은 올가을 타이즈 신제품 20여 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타이즈는 패턴이 크고 화려했던 지난해와 달리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면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계절적 특성에 맞게 차분한 분위기의 다크그린이나 로열블루 등 한층 어둡게 톤다운된 색상이 주를 이룬다. 두께도 피부가 살짝 비칠 정도인 30D(데니어)부터 단계별로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다.

'보헴시가 미니' 국내 판매량 5억개비 돌파

● KT&G는 26일 '보헴시가 미니'의 국내 판매량이 출시 8개월 만에 5억 개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일담배의 20%를 넘어선 시가엽으로 구성, 조습감·향미를 균형지로 강한 게 특징이다.

권민석 브랜드팀장은 "대학가 등 젊은층 밀집 지역에서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과 독특한 맛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라 뮤즈백 매진되기 전 '콜'

이달 29일·다음달 3일 CJ오쇼핑서 특집방송

이탈리아 감성의 잡화 브랜드 브레라(BRERA)의 가을 가방을 집안에서 쉽게 '득템'할 기회가 마련된다.

브레라는 CJ오쇼핑을 통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3일 브레라의 '뮤즈백'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브레라의 야심작 뮤즈백은 올봄 여름 시즌 크게 히트한 '린드백'의 후속 제품으로 29일에는 오전 11시10분부터 12시30분까지, 10월 3일에는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뮤즈백 특집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브레라는 올가을 겨울 시즌 광고 촬영 모델로 탤런트 유진을 발탁, 트렌디한 밴드백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브레라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브레라 거리에 있는 미술 학구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붙인 이탈리아 감성의 잡화 브랜드로 CJ오쇼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가을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콘이 될 브레라는 신세계 강남·신세계 센텀시티·롯데 미아·롯데 청량리, 대구백화점 등 백화점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31)724-5141

/박지원기자

◆브레라 매장 정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343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78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202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225
대구백화점 053)422-4442

산더덕·전어·대하…'가을 밥도둑' 수배령

이맘때 떠나면 더 맛있는 팔도 별미 여행

깊어가는 가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은 맛있는 먹거리에 있다. 여름내 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우는 '가을의 맛'을 따라 떠나보자.

◆산삼 버금가는 산더덕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양평군 용문산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더덕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2013 용문산 야생 산더덕 무제한 캐기 대축제'가 열린다.

맛과 향이 뛰어난 더덕은 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로 '사삼'이라 불리며 피로 해소 및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아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진다. 축제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 축제에서는 용문산 자락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산더덕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멋스러운 용문사와 용문산 자연휴양림 등도 있어 가족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서해안

가을 하면 전어·대하 등 수산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방사능 공포로 서해안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우선 가을 하면 전어를 맛봐야 한다.

가을이면 서해안 어디에서든지 전어를 맛볼 수 있는데 충남 서천에서는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열리고 보령에서도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대하·전어 축제'가 개최된다. 두 축제 모두 다음달 13일까지 열린다. 축제에서는 전어는 물론 꽃게·대하 등 서해안의 풍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목포 앞바다에는 손맛과 입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갈치 낚시가 있다. 낚시점을 이용하면 4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소한 갈치회 또한 일품이다.

봄이 제철인 주꾸미 낚시도 가능하다. 특히 천수만 인근 해역은 낚시와 함께 밤에는 불빛으로 주꾸미의 동선을 파악한 뒤 즉석에서 주꾸미를 건져 올려 바로 먹을 수 있다.

27일과 28일 양일간 전남 신안군 흑도에서는 '신안 불볼락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에서는 흑도의 대표 수산물인 불볼락을 회·탕·구이·튀김 등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불볼락 요리 경연대회·낚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전국 곳곳에 있는 먹거리 명소

전국에 퍼져있는 지역 음식거리 명소도 놓칠 수 없다.

연탄불 위에서 보기 좋게 익어가는 곱창으로 유명한 '대구 안지랑 곱창거리', 가을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웰빙 식품 도토리묵을 맛볼 수 있는 '대전 구즉 도토리묵마을'이 가을철 맛 여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또 복·찜·수육·불고기·튀김·맑은탕·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복요리거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한우의 살아있는 육즙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금산한우특화거리', 임금님 입맛을 사로잡은 '이천 쌀밥거리' 등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황재용 기자

핼러윈데이 드라큘라탕에 풍덩

웅진플레이도시 테마행사

도심형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다음달 31일까지 '핼러윈 ℃ 파티'를 진행하며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우선 스파존에서 핼러윈 스파 빌리지가 펼쳐진다. 오싹하고 으스스한 호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드라큘라탕과 호박등불과 핼러윈 장식으로 꾸미진 호박스파 등 핼러윈 시즌에만 만나볼 수 있는 테마스파가 준비된다. 또 가을철 건강관리를 위한 와인·한방 등 얼리스파와 유럽식 물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바데풀, 5대 허브 테마탕 등 다양한 스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핼러윈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호러를 주제로 스노우파크에서는 호러 스노우 빌리지가 운영된다. 심사 크기의 대형 이글루 2동과 사계절 눈을 뿌려주는 매직 트리 인데 전체가 으스스한 호러 체험존으로 변신한다.

또 핼러윈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워터파크에서 펼쳐지는 이색 코스프레 파티 '핼러윈 코스프레 파티'가 개최된다. 1차 온라인 참가자 모집은 10월 18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playdoci.com)에서 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전세계 옥토버페스트 모여!

뮌헨의 10월 맥주축제 유명세 타고 각국 줄겨

가을은 맥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기다. 특히 10월은 전세계 곳곳에서 맥주 축제가 열려 맥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가볼 만한 옥토버페스트를 소개했다.

우선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뮌헨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전통 음악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다. 방문객 600만 명, 맥주 소비량 700만 ℓ 를 넘는 규모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방문객들은 텐트 맥주 주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독일 맥주 및 풍성한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세계에서 2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 '블루메나우 옥토버페스트'는 10월 20일까지 펼쳐진다. 150년이 넘는 독일인의 브라질 이민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곳에서 또 다른 독일을 느끼며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10월 말까지 '상하이 옥토버페스트'가, 홍콩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마르코 폴로 독일 비어페스트'가,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0월 12~13일 양일간 '옥토버페스트'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르네상스서울호텔의 야외 비어가든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금요일에 독일식 특선 바비큐 뷔페를 즐길 수 있는 옥토버페스트를 선보인다. /황재용 기자

하루 우유 두잔 마시면 골다공증 예방

'칼슘 섭취' 다이어트 효과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7년 53만5000명에서 2011년 77만300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23만7900명이 증가(44.3%)해 연평균 증가율 9.7%를 기록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도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일반인에 비해 치료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일부 스테로이드제, 흡연, 알코올 등이며 가장 큰 원인은 골격계의 노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젊은 때부터의 무리한 다이어트도 골밀도 저하의 원인 중 하나다.

골다공증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유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유·요구르트와 같이 칼슘이 다량 함유돼 있는 유제품의 섭취가 중요하다.

또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어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미국 테네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우유 220g에 해당하는 칼슘 300㎎을 섭취하면 체중이 평균 2.7kg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인공적인 칼슘을 다량 섭취하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1%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칼슘도 있지만 이는 우유에 비해 흡수율이 떨어지고 칼슘 함량이 높은 멸치의 경우는 그만큼 나트륨 함량도 높아 체외로 배출되기 쉽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하루 두 잔 이상의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다. /황재용 기자

1인2역 완벽…연기 맛에 홀딱 빠진 여자

주말극 '금나와라 뚝딱!'

한 지 혜

MBC 주말극 '금나와라 뚝딱'을 마친 한지혜(29)는 시종일관 쾌활한 모습으로 톡톡 튀는 입담을 과시했다. 이번 드라마에서 1인 2역을 빈틈없이 소화해 호평을 이끌어낸 그는 "요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기사와 댓글을 검색하는 낙으로 산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도 유나가 저인줄 몰랐대요

극중 쌍둥이 자매인 발랄하고 긍정적인 몽희와 도도하고 까칠한 유나를 번갈아 연기했다. 자매가 현수(연정훈)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점에서 '막장' 요소가 다분했지만, 목소리부터 표정과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다르게 표현한 한지혜의 열연에 힘입어 비난은 수그러들었고, 방영 초반 한 자릿수였던 시청률은 20% 이상으로 치솟았다.

"시아버지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유나가 저인지 전혀 몰라봤대요. 저와 똑같이 성형수술을 하고 대체한 배우인 줄 알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연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듯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연기했기 때문이다. 1인 2역을 표현하고자 자신만의 대본을 따로 만들었고, 메이크업과 동선까지 직접 체크했다. 화려한 유나의 의상도 사비를 들여 구입했다.

발랄 몽희·까칠 유나 열연…막장 논란 잠재워
출연료는 1인분 하하하…요즘 기사 검색이 낙

그는 "분장실장, 연출부 등 1인 다역을 한 것 같은데 출연료는 1인분"이라고 농담한 뒤 "사실 연기가 어려워서 촬영 시에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궁리 끝에 둘의 대사를 각각 분리해 따로 대본을 만들었더니 조금 수월했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 대역을 상대로 연기하나 몰입이 안 돼 힘들었다"고 지난 고충을 토로했다.

#연정훈과 키스신 남편이 못 본 척

2010년 검사와 백년가약을 맺은 한지혜는 MBC '메이퀸'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결혼 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마다 성공시키는 비결을 묻자 "잘하고 싶은 내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전지현씨도 그렇고 요즘엔 여배우들이 결혼 후에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외모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발표했을 때 광고가 끊겼고 캐스팅도 잘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제 의지로 극복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극중 연기에 대한 남편의 반응을 묻자 "연정훈씨와 뽀뽀신이 있었는데, 남편이 못 본 척하더라. 요즘 남편이 더 멋있어 지는 것 같다"고 애정을 표현한 뒤 "연정훈씨와는 서로를 '연스타' '한스타'라고 부를 정도로 허물 없이 지낸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의 맛을 제대로 본 그는 연기에 집중하고 싶어 2년 뒤에 아기를 낳을 생각이라고 했다. 당장은 파리 패션위크 참석차 열흘간 프랑스로 여행을 떠난다. "제가 촬영 때문에 밤새고 있을 때 오빠(남편)는 뉴질랜드로 친구와 스키를 타러 갔어요. 이번에 저도 혼자 마음껏 즐기다 오려고요. 하하하."

/박진영기자 gak4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씨제스미디어) 디자인/김하림

70년대 한국영화 변화의 씨 뿌린 남자

타계한 최인호요 원작영화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당대 흥행작품 그의 손 거쳐

25일 타계한 고(故) 최인호 작가는 1970~80년대 한국 영화계를 지탱했던 영화인이기도 했다. 독재 정권으로 암울했던 그 시절,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메가폰까지 잡으며 수많은 걸작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번 주말에는 고인이 남긴 영화들을 다시 찾아 음미하는 것도 좋겠다.

▶청년문화 풍자 젊은층 지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사이트에서 최인호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무려 30여 편의 영화 제목이 뜬다. 동명이인인 배우 최인호가 출연한 '미스터 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에 원작과 각본 혹은 연출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 중 고인이 원작자로 나선 74년작 '별들의 고향'과 시나리오를 쓴 75년작 '바보들의 행진'은 당대를 대표했던 흥행작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흥행 열기를 일으켰다. 여주인공 경아(안인숙)가 여러 남자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내용의 '별들의 고향'은 "경아, 오랜만에 함께 누워보는군"이란 극중 대사를 유행시켰고, '바보들의 행진'은 억압받았던 청년 문화를 해학적으로 풍자해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 작가는 '바보들의 행진'에 술 마시기 경연 대회의 심사위원 역으로 특별 출연까지 했다.

▶한국 무비 르네상스 예고

당시 이장호·하길종 감독과 파트너십을 이뤘던 최 작가는 80년대부터 배창호 감독과 손잡고 '깊고 푸른 밤' '고래사냥' 적도의 꽃' '안녕하세요 하나님' '천국의 계단' 등 여러 흥행작을 합작했다.

이 시기 작품들은 흥행성과 흥행에서 모두 최고 수준을 자랑했는데, 현대인들의 고독한 자화상을 그린 '깊고…'와 '적도의…'부터 휴머니즘 가득한 '고래사냥'과 '안녕하세요…'까지 깊이와 폭은 가늠할 수 없는 왕성한 필력으로 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고인과 45년생 동갑내기 '절친'으로 서울중·고 동기 동창이기도 한 이장호 감독은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영화에 입문할 수 없었다"며 "70년대 한국 영화의 변화를 주도했던 선인자였다"고 회고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배우 경력은 양날의 검과 같죠"

'톱스타'로 감독 데뷔 박중훈

감독으로 변신한 박중훈이 "배우 경력은 양날의 검"이라고 밝혔다.

박중훈은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연출 데뷔작 '톱스타' 제작보고회에서 "좋은 연기를 잘할 배우란 점에서 나를 신뢰하면서도 감독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엄격하게 보는 주변의 우려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연출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상한 건 5~6년 전부터"라면서 "배우는 한 가지를 깊이 파지만 감독은 넓게 봐야 한다. 바로 책임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을 겸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감독만 하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중훈이 아카데미 트로피 모형의 피켓을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이 영화는 연예계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젊은 남녀의 야망과 좌절을 그렸다. 엄태웅은 매니저 출신의 주인공 태식을, 김민준은 오만무도한 성격의 톱스타 원준을 각각 연기했다. 소이현은 제작자 미나 역을 맡아 극을 오간다.

엄태웅은 "감독으로서의 박중훈 선배님은 현장에서의 판단도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다"며 높이 평가했다. 김민준 역시 "감독님이 직접 연기로 설명해줘 감정 이입이 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달 24일 개봉.

/조성준기자

다정한 부녀지간 손예진(오른쪽)과 김갑수가 26일 서울 강남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공범' 제작발표회에서 부녀처럼 다정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다음달 개봉될 이 영화에서 손예진은 아버지의 과거를 의심하는 딸로, 김갑수는 비밀을 품고 사는 아버지로 호흡을 맞췄다. /뉴시스

▶ 한 쪽은 브이자를 그리며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한 쪽은 엉덩이를 쥐어 하네요. /조성준기자

'러시' 영국 상영 첫주 1위

두 천재 카레이서의 불꽃 튀는 명승부 실화를 옮긴 '러시: 더 라이벌'이 영국에서 상영 첫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러시…'는 개봉일인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213만9120달러(약 22억9648만원)를 벌어들였다.

거장 론 하워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토르' 시리즈의 크리스 헴스워스(사진 왼쪽)와 스페인 출신 연기파 다니엘 브륄(오른쪽)이 출연한 이 영화는 한국에선 다음달 9일 개봉된다.

star bag

가족관계 루머 유포자 고소

이영애가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선처없이 고소했다. 이영애는 "자신의 남편과 전 부인 사이의 아들이 또 여성 연예인과 결혼했다는 허위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친 있다" 라디오서 고백

연기자 정경호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다.

정경호는 일일 진행자로 나선 25일 MBC '신동의 심심타파'에서 "지금도 (여자친구가) 집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백한 '쉘 위 댄스' 음원 공개

탤런트 박세영이 디지털 싱글을 선보였다.

박세영은 26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 '쉘 위 댄스' 음원을 공개했다. 이 노래는 작곡가 최민호의 곡으로, 박세영의 담백한 음색과 따뜻한 느낌의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다.

'아가씨와 건달들'로 뮤지컬 도전

샘 해밍턴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로 무대 연기를 처음 경험한다.

해밍턴은 이 뮤지컬에 빅쥴리 도박사 네이슨을 쫓는 열혈 형사 브래니건으로 출연한다. 또 다른 도박사 스카이 역에는 류수영이 캐스팅됐다.

응답하라 1994

팔도청춘 in 서울

촌놈들의 전성시대

10월 18일 tvN 첫방송 / 매주 금,토 (밤) 9시 방송

성동일 | 이일화 | 고아라 | 정 우 | 김성균 | 유연석 | 손호준 | 바 로 | 민도희

기획 이명한 | 연출 신원호 | 극본 이우정

‘제5계급’ ‘이방인’ 안 보시면 후회!

프로그래머 추천작 7선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0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주목받는 만큼 화제작들로 가득 채워졌다. 김지석·이수원·박도신 프로그래머의 추천작들을 한데 모았다.

/조순옥기자 sunny@metroseoul.co.kr

◆ 거장들의 신작(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

천주정(중국·일본, 감독 지아장커)

폭력에 대한 지아장커의 고찰. 광부·청부살인업자·사우나 리셉셔니스트·공장 노동자의 폭력의 근저에는 불평등과 사회구조적 문제가 깔려있다. 지아장커가 무협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빌려 현대 중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근면한 료타는 여섯 살 난 아들이 그들 부부의 친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을 재검토한다 거기다가 료타는 자기의 친자를 키운 가족들의 거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다.

리얼 완전한 수장룡의 날(일본,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강지는 혼수상태의 환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의학적 치료의 일종이다. 이 방법을 통해 고이치는 자신의 연인인 아츠미가 일 년 전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알아내려 한다. 그녀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두려워하던 고이치는 그녀의 무의식이 수장룡의 그림을 요구하자 크게 당황하기 시작한다.

◆ 올해 대표 화제작(이수원 프로그래머)

아델의 이야기 1부와 2부(프랑스, 감독 압델라티프 케시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두 주연 배우의 연기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찬사를 보낸 올해 최고 화제작. 15세 소녀 아델의 인생은 파란 머리 엠마와 영구히 바뀐다. 엠마는 아델의 욕망을 열어주는 문이자 담담한 연인이자 어른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다. 엠마와 더불어 아델은 성장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다.

호수의 이방인(프랑스, 감독 알랭 기로디)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에로틱한 정사와 미자막식의 도망자 스릴러가 뒤섞이는 동성애 영화. 프랑스 중견 작가 알랭 기로디의 신작으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 수상작이다. 남자들만의 특별한 공간인 한 호숫가에서 느긋한 성격의 프랑크는 치명적인 매력의 음므파탈 미셸에게 빠져든다. 그는 결국 사랑과 죽음의 불안한 기로에 서게 된다.

◆ 할리우드 신작(박도신 프로그래머)

올 이즈 로스트(미국, 감독 J.C. 챈더)

홀로 항해를 떠난 남자의 요트가 떠다니던 컨테이너에 부딪혀 심한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된다. 마치 '노인과 바다'와 '캐스트 어웨이'를 합쳐 놓은 듯한 이 영화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연기만으로도 볼 만한 작품이다. 기존의 멋지고 세련된 이미지로만 레드포드를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대자연에 맞서 외로이 싸우는 나약한 노인을 연기한 그의 변신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 작품으로 그와는 인연이 없었던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본다.

제5계급(미국, 감독 빌 콘돈)

위키리크스의 2인자이자 줄리안 어샌지의 오랜 파트너로 활동해왔던 대니얼 돔샤이트베르크의 자서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내용만으로도 올해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PHOTO

고혹적인 두 여인 소녀시대의 제시카(오른쪽)와 f(x) 의 크리스탈이 동반 화보를 통해 뚜렷한 자매애를 과시했다. 한 주얼리 브랜드 화보에서 고전 발레의 여주인공으로 변신해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 축복받은 우월 유전자네요. /박진한기자

M COUNT DOWN 9월 4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순위	가수	곡	변동
1위	G-DRAGON	삐딱하게	NEW
2	소유X매드클라운	착해 빠졌어	−
3	크레용팝	빠빠빠	▲
4	카라	숙녀가 못 돼	▲
5	휘성	짐승이야	▲
6	김예림	Voice	▼
7	버스커버스커	처음 예뻐	▲
8	박진영	놀만큼 놀아봤어	▼
9	스피카	Tonight	−
10	신이	아는 사람 얘기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생방송 MnetMcountdown MnetMAMA

시사쇼 마이크잡는 신정아

'강적들' MC 맡기로 … 스캔들 파문 인물 자격 논란

학력 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사진)씨가 방송 MC로 데뷔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6일 "다음달 첫 방송될 시사 버라이어티 토크쇼 '강적들'에 신정아씨가 MC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씨를 포함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6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는 시사쇼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봉규 시사평론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함께 출연한다.

신씨의 출연은 연출자 은경표 PD가 4개월여를 쫓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권유해 섭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으로서 큰일을 겪은 많은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신씨가 받아들였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학력 위조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신씨의 MC 데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범법자를 MC로 내세우는 건 옳지 않다" "여성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종편이 갈 데까지 가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TV조선의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도 MC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당사자는 "제작진에게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출연 명단에 포함돼 황당하다"고 부인했다.

/박진영기자 pck1027@metroseoul.co.kr

비, 중국 오디션프로 게스트 나선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가수 겸 배우 비(사진)가 중국 방송에 출연한다.

소속사는 26일 "비가 27일 현지 후난TV의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쾌락남성'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2004년부터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중화권 톱스타로 활동중인 리위춘 등을 배출했다. 중국의 슈퍼스타K로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지난 시즌 결승전은 무려 4억명이 시청했을 정도다.

28일 귀국할 비는 제대후 첫 국내 일정으로 다음달 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팬미팅에 참석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랜만에 국내 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성준기자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작품	예매율
1	관상	25.15%
2	스파이	13.82%
3	컨저링	13.56%
4	몬스터 대학교	10.31%
5	섀도우 헌터스: 뼈의 도시	6.31%

감독: 한재림 / 주연: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 조정석 김혜수

자료제공 movie.yes24.com

한채영 장동건과 한솥밥

한채영이 장동건 등과 한솥밥을 먹는다. SM C&C는 26일 "최근 한채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외 비즈니스 노하우를 살려 아시아 대표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이곳에는 장동건을 비롯해 공형진 김수로 방송인 강호동·신동엽·김병만 등이 몸담고 있다.

지난달 말 아들을 낳은 한채영은 이른 시일 내 작품 활동을 재개한다.

오종혁 "소연과 사귀고 있어요"

여친 애교 많아 반해

남성 아이돌 그룹 클릭비 출신 오종혁(왼쪽 사진)과 걸그룹 티아라의 소연(오른쪽)이 교제중이다.

오종혁과 소연의 소속사인 DSP미디어와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26일 "둘이 사귀고 있다. 많이 응원해달라"며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한 인터넷 연예 매체는 오종혁과 소연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나. 듬직한 성격의 오종혁이 클릭비의 오랜 팬이었던 소연의 애교 많은 성격에 반해 바로 프러포즈했고, 해병대 입대와 전역 이후에도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소연은 군 복무 중인 오종혁을 살뜰하게 챙기며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고, 오종혁은 소연이 티아라 문제로 힘들 때 조언을 해주며 위로했다"며 "양가 가족들도 교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f(x)의 설리와 다이나믹듀오 최자는 열애설을 부인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설리 측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얼쑤~ 팔도 민속예술

단양서 내달 3일 축제 개막

전국 각지의 민속 예술 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다음달 3~6일 충북 단양의 생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 단양군이 주최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 예술 축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출발했으며 94년부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민족 예술 전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등은 이 행사를 통해 빛을 본 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통 예술이 됐다. 사물놀이의 대중화를 주도한 김덕수 사물놀이도 이 축제 출신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이북 5도에서 출전한 19개 작품, 13개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작품이 각각 경연을 벌인다. 대상 수상 단체에는 각각 대통령상과 1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부산에서 어부가 원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불렀던 노래로 전해 내려오는 '다대포후리소리', 경기도의 공지원 농악, 경북에서 농사를 짓기 전 열린 의식이자 행사였던 '농사굿 12마당' 등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우리의 소리와 문화를 푸손들이 그대로 재현한다.

조직위원장인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잊혀져 있던 우리 고유의 예술을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국민 모두의 축제가 돼야 한다. 잊혀지면 안 될 우리의 문화가 올해도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23화 글 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김준수 '김광석 노래' 부른다

창작뮤지컬 '디셈버' 출연

JYJ 김준수(사진)가 뮤지컬에서 고 김광석의 곡을 부른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김준수가 12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할 창작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의 출연을 확정했다"면서 "영원한 가객 김광석의 노래를 엮은 작품으로, 김준수는 수록곡과 푸르른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끌려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뮤지컬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다른 깊이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작품에 끌렸다"면서 "코주와 일본 공연이 남아있는 솔로 2집 정규 투어에 주력한 뒤 뮤지컬 연습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모차르트!'로 뮤지컬에 데뷔한 김준수는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티켓을 매진시키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각종 뮤지컬 시상식에서도 신인 남우상과 인기상을 휩쓸었다. 이달 초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엘리자벳' 재공연 역시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탁진현기자

차세대 비올리스트 이승원 리사이틀

차세대 비올리스트 이승원(사진)이 10월 금호아트홀에서 비올라 리사이틀 '낭만기도'를 마련한다.

이승원은 국내 정상의 현악 4중주 팀인 노부스 콰르텟의 비올리스트다. 20개가 넘는 국내외 콩쿠르 입상, 비올라계의 대모 조명희의 조카이자 세계적인 거장 타베아 침머만의 첫 한국인 제자,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석사 3년) 최연소 합격 등 24세의 어린 나이에 화려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지난 7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현지에서 얻은 음악적 영감과 개인적인 추억을 작품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연주 프로그램은 모두 독일 낭만음악의 정수로, 스승인 침머만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는 선곡이다.

독일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듀오로 함께한다. /탁진현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do you plan to do tomorrow? 계획 세우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내일은 뭐 할 계획이에요?
당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내일은 휴일이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말 계획을 세우려는 중이에요.
저는 산에서 며칠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확인하세요.

What do you plan to do tomorrow?
Do you think you can explain your plans for your future?
There's nothing to do because tomorrow is a holiday.
We're trying to plan for the weekend.
I'm hoping to spend a few days in the mountain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밑줄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 말하세요.

A We're 계획하려고 하는 for the weekend.
B What are you planning?

정답 trying to plan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e're [trying to / trying our best to] plan our future.

2 I'm hoping to spend a few days [in the mountains / by the sea].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장소 전치사 at

▶ at은 장소를 나타낼 때 '~에서, ~지점에'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장소	at a party 파티에 at work 직장에 at home 집에 at the airport 공항에
특정 지점	at the door 문에 at the traffic sign 신호등에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He works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서 일해요.
2 I met my wife at the party. 전 제 아내를 파티에서 만났어요.
3 My sister is at home now. 제 언니는 지금 집에 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vergo's latest hiking shoe, the Rugged Wear Trekker, is ______ named for its durability and strength.
(A) suitably (B) suitable
(C) suitability (D) suitableness

02 The Global Marketing Manager is required to travel extensively and so must be ______ to unfamiliar situations.
(A) opposed (B) versatile
(C) relative (D) adaptable

01. 에버고 사의 최신 하이킹 슈즈인 러기드 웨어 트레커는 그 내구성과 견고함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해설 be 동사와 과거분사(named) 사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부사 (A) suitably를 써야 한다.
어휘 rugged 튼튼한, 질긴 be named for ~으로 이름 붙여지다 durability 내구성 strength 견고함 suitably 적합하게 suitable 적합한 suitability 적합성
정답 (A) suitably

02. 해외 마케팅 매니저는 널리 출장 다니는 것이 요구되므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한다.
해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이 적합하므로 (D) adaptable(적응할 수 있는)을 쓴다. adaptable은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한다.
어휘 extensively 광범위하게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opposed 반대되는 versatile 다재다능한 relative 상대적인
정답 (D) adaptabl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안하기

답변할 때 자주 쓰는 표현

- 정중히 사과하기

I'd like to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I'm sorry about the problem. 문제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 해결책 제시하기

I will send one of my staff members to deliver it.
그것을 배달하도록 직원 중 한 명을 보내겠습니다.

I suggest that you call a catering service.
출장 연회 서비스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After checking your message, I checked your order.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What I propose is that we hire more staff.
제가 제안하는 바는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입니다.

'기록맨' 추신수 300출루 -4

보라스 "몸값 1000억 이상" 한국인 최고 액수에 도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추신수의 몸값을 1억 달러(약 1076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이적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물로 통하는 보라스는 26일 미 CBS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출루율 0.420 이상을 올린 선구안과 출루 능력, 홈런 20개 이상을 때리는 파워, 도루 20개 이상이 가능한 스피드, 100득점 이상 올리는 팀 공헌도 등을 모두 겸비한 톱타자를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본 적이 없다. 이 같은 기록들을 앞세워 고객 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라스의 호언장담대로 내년 FA 자격을 얻는 추신수의 몸값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면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최고 액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박찬호가 2001년 말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계약하면서 받은 6500만 달러(약 699억원)다.

추신수(왼쪽)와 스콧 보라스 /연합뉴스

잔류를 추진 중인 현 소속팀 신시내티를 비롯해 뉴욕 메츠와 시카고 컵스 등 여러 구단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라스는 "톱타자가 필요한 팀은 많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추신수는 시즌 300출루에 4개 차로 다가섰다.

추신수는 이날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볼넷 2개를 얻어냈다.

이로써 시즌 안타 160개, 볼넷 110개, 몸에 맞는 공 25개와 더불어 296출루를 기록했다.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 20도루, 100볼넷, 300출루 기록을 한 시즌에 달성한 횟수는 올해 마이크 트라우트(LA 에인절스)까지 모두 11번에 불과하다. 팀은 0-1로 패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오른쪽 발등 부상 연아 그랑프리 시리즈 불참

피겨 여왕 김연아(23·사진)가 발 부상으로 국제빙상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에 불참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6일 "김연아가 훈련 중 오른쪽 발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얼마 전 검사를 받은 결과 중족골(발등과 발바닥을 이루는 뼈)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며 "약 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완치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김연아는 이로써 다음달 25~27일 캐나다 세인트존에서 열리는 시리즈 2차 대회와 11월 15~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질 5차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다음달 8일 PS 돌입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다음달 8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다음달 8일 페넌트레이스 3~4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시작으로 포스트시즌이 열려진다"고 밝혔다.

KBO가 이날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16~22일에는 페넌트레이스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치른다.

페넌트레이스 우승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맞붙는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하키야? 권투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프리시즌 경기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피닉스 코요테스-캘거리 플레임스 전에서 피닉스 폴 비소넷(왼쪽)과 캘거리 팀 잭맨이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다. 아이스하키에선 주먹다짐도 플레이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AP 뉴시스

김민휘 "2연패 출발 좋다"
신한동해오픈 1R 공동선두

김민휘(21·신한금융그룹)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신한동해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의 첫걸음을 뗐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김민휘는 26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413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로 이동민(28)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 활동하다 올해 국내 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민휘는 4번 홀(파3) 7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다.

우승 후보로 가운데 한 명인 김경태(27·신한금융그룹)는 더블보기 1개를 버디 3개로 만회하며 공동 9위로 출발했다.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배상문(27·캘러웨이)은 버디 3개를 보기 3개로 맞바꿔 공동 18위(이븐파 72타)에 그쳤다. /조성준기자

가을야구 쉬는 SK '분풀이 홈런 3방'

이재원·박재상·김강민 활약 힘입어 삼성에 V… 두산, NC 꺾어

SK 와이번스가 선두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SK는 26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이재원(2점)과 박재상(3점), 김강민(2점)의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8-5로 울리했다.

SK는 4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으나 올해 삼성과의 상대 전적을 8승 8패로 마치고 자존심을 지켰다.

연승 행진을 '8'에서 멈춘 삼성과 2위 LG의 승차는 1.5경기로 좁혔다.

SK 선발 크리스 세든은 6⅔이닝 동안 5점을 내줬으나 타선 지원 속에 13승(6패)째를 챙긴 반면 전날까지 같은 12승 투수이던 삼성 윤성환은 패배에 무너져 시즌 10패째를 안았다.

전날 가을 잔치 행을 확정한 두산도 NC를 8-1로 제압하고 3위 넥센에 승차 없이 따라붙었다.

등 근육통을 딛고 돌아온 두산의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가 두 경기 연속 호투로 포스트시즌에서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니퍼트는 6이닝 동안 89개를 던져 삼진 7개를 곁들이며 NC 타선을 1점으로 막고 시즌 12승(4패)째를 수확했다.

두산 주포 홍성흔은 1회 우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7월 17일 LG전부터 50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올 시즌 NC에 12승 4패를 거둔 두산은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광주구장에서는 롯데가 선발 투수 이심퇴의 5이닝 4탈삼진 1실점 호투에 힘입어 KIA를 2-1로 이겼다.

마무리 투수 김성배는 탈삼진 3개를 곁들이며 30세이브를 달성했다. 김사율(34S)·박동희(31S)를 잇는 팀내 역대 3위 기록이다.

/이상범기자 2001@

프로야구 전적 26일

■잠실

NC	001	000	000	1
두산	410	010	02X	8

■문학

삼성	000	030	200	5
SK	100	230	20X	8

■광주

롯데	101	000	000	2
KIA	001	000	000	1

해태

Korea Brand Power 1 2013년 7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부라보 부라보 부라보 부라보

부라보 Lucky 7 페스티발

부라보콘 상단 내면에 "당첨"이 나오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 1등 LG 디오스 냉장고(820L) 3명
- 2등 삼성 LED TV(40인치) 4명
- 3등 아이패드4(16G) 8명
- 4등 삼성 로봇청소기 10명
- 5등 황금열쇠(금 3.75g) 20명
- 6등 부라보콘 1박스 100명
- 7등 영화관람권(1인 2매) 200명
- 행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0명

※당첨 시 상단 내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후, 당첨 인쇄된 상단부분 발송

자세한 참여방법은 www.ht.co.kr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까지

경품지급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5만원이상(1등~5등) 경품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22%)이 부담됩니다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경품수령)는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입니다

본 제품 상단 내면의 '당첨'여부를 확인하세요

당첨확인